

[트렌드 & 스타일]



올 봄 신랑·신부 예복

‘실루엣 + 화려함’으로 행복 워킹

‘쌍춘년’에 결혼하면 백년해로... 격식지키면서 실용적인 옷 선호

지난달 결혼한 오혜진(여·28·광주 광산구 신창동) 씨는 “한 번 입고 말 옷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용적인 단품을 구매해 코디했다.”고 말했다.

남성 예복 ‘실루엣 강조’

올 봄 남성 예복의 키워드는 ‘실루엣’. 남성의 몸매를 잘 드러내 세련되고 키가 커 보이는 실루엣 슈트가 인기다.

유행으로 당분간 화려한 예복의 인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검정색도 꾸준히 선호도가 높은 색상이다. 검정색 예복은 이지적이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데다 셔츠나 넥타이의 컬러나 디자인 등에 따라 더욱 감각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남성 정장 걸러시의 진주색 소장(35·광주 롯데 백화점)은 “올해는 실버 그레이 컬러에 스트라이프 무늬, 허리라인이 들어가 날씬해 보이는 옷이 예복으로도 인기”라면서 “예복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옷을 고르라”고 조언했다.

여성 예복 ‘액세서리’ 활용해 화려하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웃음만큼 평소에도 입기 힘들었던 화려한 예복을 선택하는 신부들이 많다.

에 치중하기 보다는 액세서리를 이용해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 봄 예복은 여성미를 강조하는 로 맨티시즘과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절제미를 강조하는 의상이 인기다.

하리를 강조하는 하이웨스트 의상은 몸매를 돋보이게 한다. 다소 살집이 있는 몸매라면 벨트드 원피스를 추천한다.

액세서리를 이용해 특별한 날을 강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꽃 모양의 화려한 코사지나 분홍, 빨강 등 과감한 색상의 리본 장식의 벨트, 미니 사이즈의 비즈 토드백을 함께 코디해 여성스러운 매력을 드러내도록 한다.



올해는 음력으로 입춘이 두 번 들어있었다는 ‘쌍춘년(雙春年)’이다. 200여 년만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데다 쌍춘년에 결혼을 하면 백년해로한다는 속설이 있어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머니나 '패랭이꽃' 이용 크르사주, 바구니 만들기. Includes images of flowers and baskets, and text about Mother's Day gifts.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Services include real estate and mortgage.

유성공인중개사 (032)352-4545, 364-4545. Real estate services in Gyeongju.

LC타워(주) (02)972-8004, 010-7154-6986. Real estate services in Seoul.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Real estate services in Seoul.

21세기부동산개발(주) (02)525-0021, 011-812-3421. Real estate development services.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0-1140, 020-801-602-2332. Real estate services in Seoul.